

# TEDTalks, Tom Thum

## The orchestra in my mouth

00:11	제 이름은 탐입니다. 저는 제가 돈벌이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러 오늘 이자리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저의 입을 기묘한 형태로 사용하지요. (웃음) 저는 이런 일들을 허름한 시내의 술집에서 하거나 길모퉁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준비된 것들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요.
00:45	(비트박스)
02:13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은 고전으로 돌아가는게 좋겠군요.
02:22	(박수갈채)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돌려서, 이 시간 때 짬이 좋겠군요 (비트박스:"빌리 진")
02:53	빌리 진은 내 연인이 아니야.
02:57	내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소녀일 뿐이지.
03:02	그러나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지.
03:06	(박수갈채) 네 좋습니다.
03:13	어떠셨어요.
03:16	정말 감사합니다. 테드 엑스.
03:18	제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이름은 탐 썸이구요. 비트박서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모든 소리는 제 목소리만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정말 제 목소리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마이크나 어디에도 효과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03:42	그리고 현재 너무, 너무 흥분됩니다.
03:45	(박수)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니깐요. 정말 좋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나 드디어 해냈어!
03:54	저는 정말로, 정말로 오늘 이자리에 있는 것이 흥분됩니다. 내재된 비인간적인 소음을 만드는 능력으로 저와 같이 아직 직업을 가지지 못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서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리 일할 곳이 많은 분야도 아니구요. 특히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요. 저는 브리즈번에서 왔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여기 브리즈번 출신 분들이 대부분인가봐요. 좋아요. (웃음) 브리즈번에서 왔구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시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남반구의 문화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브리즈번을 벗어나 작업을 합니다. 호주를 벗어나서요. 그리고 이 미친듯한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의 놀라운 곳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자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행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대륙을 횡단하고 소리 그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4:58	중부 사막지 역에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05:02	(디저리두) *대나무로 만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원주민들의 관악기
05:12	(비행기)
05:16	인도.
05:17	(비트박스)
05:31	(시타르) *인도의 목이 긴 발현 악기.
05:36	중국.
05:38	(구쟁) *중국의 전통악기
05:51	(비트박스)
05:58	독일.
06:00	(비트박스)
06:18	파티, 파티, 네.
06:20	(웃음)
06:25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번영하는 거대 도시 브리즈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앞의 이것들은 카오스 패드라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로 여러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왼쪽의 이것은 제 목소리에 약간의 울림을 첨가할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트럼펫) 소리를 나게 하죠. (웃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드럼 기계같은 효과를 흉내내기 위해 혹은 그런 종류의 악기 소리를 위하여 이 녀석들을 함께 사용합니다. 제 목소리의 일부를 따와서 여기 패드들을 눌러서 다시 재생시킵니다. (소리들) TEDx
07:39	(음악)
07:57	(박수)
08:01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군요.
08:06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 목소리를 반복 반복 반복 반복 재생합니다.

08:16	설명한 것들을 명심하시고, 신사 숙녀 여러분, 여행으로 모시겠습니다. 완전히 우리 지구와 분리되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연기가 자욱한 시내 재즈 바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08:35	(음악)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한 친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위대한 더블 베이스스트. 스모키 제퍼슨, 몸 좀 풀어볼까요. 갑시다. 여러분.
08:55	(음악)
09:38	좋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공연의 주인공인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재즈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의 연인이자 재즈의 연인, 부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뿐이며 유일한 피핑 탐씨. 가봅시다.
09:53	(음악)
09:58	(박수)
11:14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1:16	(박수)